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⑪ 〈원각경변상도〉에 대한 의문들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원각경〉의 주존은 석가여래지만, 변상도의 주존은 노사나불이다. 불교미술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노사나불로 표현한다.

설법하는 석가모니, '노사나불'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그림1) 그림 한가운데에 노사나 부처님이 아름답게 장엄을 하고 설법인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설법하는 것일까?

우선 부처님을 둘러앉은 청중을 보기로 하자. 노사나 부처님의 양옆으로는 문수보살(정면에서 보아우측)과 보현보살(정면에서 보아 좌측)이 협시하고 있다. 문수보살은 푸른 얼굴의 용맹스런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하얀 색의 우직한 코끼리를 타고 있다. 문수와 보현의 밑으로는 각 5구의 보살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둘러 앉아있는데, 그 옆에는 각기 이름이 모두 명기되어 있다.(그림2) 존명을 살펴보면, 〈원각경〉에 나오는 총 12장(章)에 해당하는 12보살들이다. 우측에서 시작해서 좌우로 번갈아 가며 배치되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다음으로, 보안 보살 · 금강장보살 · 미륵보살 · 청정혜보살 · 위덕자재보살 · 변음보살 · 정제업장보살 · 보각보살 · 원각보살 · 현선수보살의 총 12보살의 성중이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원각경변상도〉, 고려시대, 비단에 채색, 165x58cm, 미국 보스톤미술관 소장.

그림②. 질문하는 12보살(보안보살 · 미륵보살 · 위덕자재보살 · 정제업장보살 등)

저본 〈원각경〉 주존 '석가여래' 노사나불, 왜 변상도 주불일까
보신 노사나불, 소승 대승 섭수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설하신 석가모니를 노사나불로 표현해

12보살, 즉문즉답의 신랄한 전개

〈원각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12보살들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날카로운 논리로 전개한다. "여래의 '본래 자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자리를 '원각(圓覺)'이라고 표현한다. 이밖에도 "어떻게 해야 중생이 온갖 환(幻)에서 벗어납니까", "무명은 무엇입니까", "애욕은 어떻게 끊습니까" 등 수행하다가 여지없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가감 없이 터져 나온다. 이것이 항상 궁금했던 독자들도 읽다가 속이 다 시원할 정도이다. 사실, 너도나도 궁금했던 질문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성스러운 진리의 답변을 하신다. 그 안에는 중생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자비로 품는 부처님의 간절한 따스함이 묻어 있다.

〈원각경〉의 본 제목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다. '수다라'는 수트라(sūtra)의 음차이다. 특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비유나 방편이 아닌) 그대로 전달한 경전을 일컫는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원각'이라는 깨달음을 설한 경전 중에 '요의(了義)', 즉 '핵심'만 뽑은 것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의 요지에 대한 핵심정리' 또는 '궁극의 가르침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되겠다. 수행의 요지는 12보살의 키워드 질문과 석가모니의 직설적 답변으로 펼쳐진다. 이때 경전 상의 설법하는 주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몇몇 핵심적 문답을 살펴보자.

날카로운 질문, 성스러운 답변

가장 먼저, 지혜제일(智慧第一) 문수보살의 질문부터 시작된다. "불도(佛道)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부처님은 이와같이 답한다. "무명(無明)을 영원히 끊는 것이다. 무명이란, 허망하게 사대(四大 · 地水火風)를 내 몸으로 삼고, 육진(六塵)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삼는 것. 병난 눈(환幻)에서 벗어나 원각의 눈으로 보아야만 윤회가 끝난다. 환에서 벗어나면 곧 각(覺)이다."(〈원각경〉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하 상동)

다음으로 보현보살이 물었다. "일체가 환이라면, 어떻게 환으로써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에 석가모니는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 삶에/ 근원 알 수 없는 환(幻) 같은 무명/ 그 모두는 여래의 빛나는 원각/ 거기서 생겨나와 흘러간다/ 이는 마치 허공의 꽃(공화, 空華) 같아서/ 그 모습을 허공에 의지했다가 다시금 사라졌어도/ 허공의 근본은 부동(不動)이라네"라며 그 부동의 마음을 '원각묘심(圓覺妙心)'이라고 명명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안보살이 "중생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뭅니까"라며 수행점차(修行漸次)를 묻는다. 이에 붓다는 계(戒) · 정(定) · 혜(慧)의 순차적 완성을 설했다.

그러면서 "먼저 계를 지키고, 단정히 앉아 선정수행(사마타행)을 하고, 다음으로 정념(正念)으로 관찰한다"고 답했다. 정념과 동의어로, 관(觀) · 지혜 · 통찰지 · 위빠사나 등이 있다.

"선정 없이 관(觀)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몸이 지수화풍 사대의 조합인 줄 보고, 그 허망한 인연화합으로 육근과 육경이 생겨, 다시 허망한 기운이 쌓여 모습이 있는 듯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라며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설법의 핵심 '사념처'의 내용이 나온다. 이로써 '환을 여의는 방법'이 설해졌다.

幻 벗어나려면 '계 · 정 · 혜' 수행을

하지만, 더욱더 강도 높은 질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모든 중생에게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부처님은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라고 하십니까"라고 금강장보살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다.

이에 부처님은 "염념상속(念念相續) 순환왕복(循環往復)"이라며 "생과 멸, 응집과 해체, 일어남과 사라짐이 계속적으로 상속하여 순환 반복되며, 이를 취하고 버리는 마음도 반복된다"고 하신다. 이러한 윤회의 마음을 눈병에 비유하신다. 즉, 눈병 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통 세상이 그리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윤회의 마음으로 보니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허공의 꽃은 오온(五蘊)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원각은 열반을 말한다. 환(幻) 대 각(覺), 공화 대 원각, 오온 대 열반, 대비되는 두 마음의 공식을 읽을 수 있다.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하여 생사를 되풀이하면/ 오로지 윤회 속에 있을 뿐/ 부처님의 바다에는 갈 수 없네. 그 허망함을 보고 원각을 구하라."

이렇듯 궁극의 답변으로 어마어마한 토론이 끝난 듯하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심장 쫄깃한 문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추후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다면 〈원각경〉을 직접 찾아보기를 권한다.

설법주 '석가', 왜 '노사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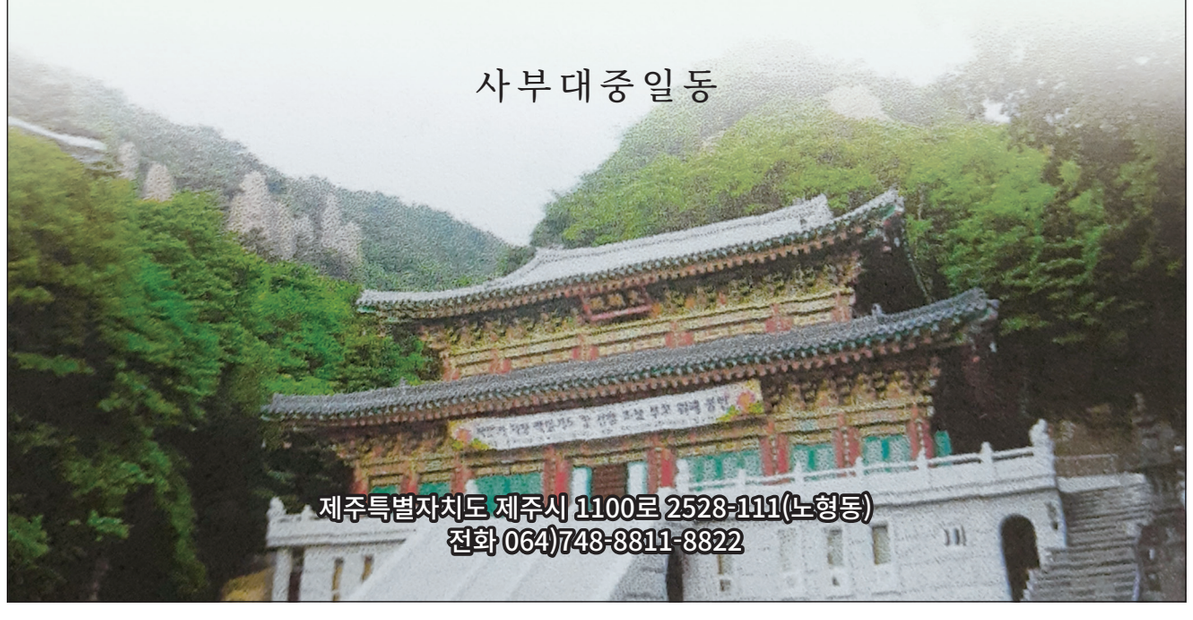
그런데 〈원각경변상도〉를 보면서 드는 의문. 〈원각경〉 속의 설법하는 부처님은 엄연히 '석가모니'인데, 왜 그림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그려졌을까? 주지하듯이, 〈화엄경〉 · 〈원각경〉 · 〈범망경〉의 주존은 모든 불화(괘폭장 및 변상도 등 포함)에서 '노사나'로 표현된다. 이들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 또는 깨달음의 과보는 '노사나'라는 부처님으로 묘사되는데, 높은 보관 및 영락 구슬로 장엄되어 매우 화려하다. 이러한 몸체 그 자체를 '화엄(華嚴)'이라고 한다. 화엄이란,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말하는데, 이를 연화장세계라고도 한다. 여기서 꽃은 '보신'을 말한다. 〈화엄경〉의 축소판인 〈원각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각(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절차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범망경〉은 계율이 정리된 경전으로 본래 명칭은 〈범망경 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이다. 원각을 성취하는 수행 절차의 요지가 '계 · 정 · 혜'인데, 수행의 발판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해놓은 것이 〈범망경〉에 해당하겠다.

다음으로 수행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원각경〉, 그리고 보살의 수행 계위와 그 과보로서의 경지를 묘사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경〉 · 〈원각경〉 · 〈범망경〉의 '대방광불(大方廣佛)'은 '노사나'로 나타난다. "다라니 무진 보배로써 법계를 장엄하니,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몸체로 나타낸 것이 '노사나' 부처님 존상이다.

그러면,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노사나는 '삼신(법신 · 보신 · 응신)' 중에 '보신'에 해당된다. 개인 성불을 위한 소승적 목표와 중생구제의 대승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닌 존재를 '보신'이라 한다. 그렇기에 보신은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의 양자적 의미를 갖춘 것으로 정의된다. 석가모니께서 성도하신 후, 자내증(自內證)을 한동안 스스로 즐기셨다. 그러다가 그 깨달은 내용을 중생에게 설법하실까 말까 고민하시게 된다.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설법을 하기 시작한 석가모니'. '설법하는 석가모니'는 불교미술에서 '보신 노사나'로 표현된다. 쉽게 말하면, 입을 다무시면 '자수용신'이고, 입을 여시면 '타수용신'이다. 왜냐하면, '입을 여신 이유'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대한불교천태종
해 동 사
주지 박도선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67(법흥동)
전화 054)852-6320
https://haedongsa.com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 왕 사
조실 월 서
주지 지 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노형동)
전화 064)748-8811-8822